강성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강성률 문학티비' 운영중

## 철학자들의 우정-박지원과 박제가(3)

(지난 호에 이어) 어떻든 박제가가 박지원을 만난 것은 그의 나이 10대 후반 무렵이었다. 박지원을 중심으로 성황을 이룬 백탑 시파(서울 종로 2가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인근에 살았던 북학파 시인들.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등) 문인들은 서얼(조선시대 첩의 자식)에 대한 차별 의식이 없었고, 무엇보다 지적 능력을 우선시했다. 개방성과 개성을 존중했던 이들 속에서 박제가는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발휘하고 꽃을 피웠던 것이다.

또 하나, 서얼 출신을 차별하지 않은 곳은 청나라였다. 청나라 문인들은 박제가에 대해서도 학자나 시인으로 평가할 뿐, 출신에 대한 편견은 전혀 갖지 않았다. 또한 당시 청나라는 조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리하여 박제가는 그 누구보다 청나라를 사랑했다. 마침내 박제가는 1778년, 정사(正使) 채제공(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입장에서 그의 아들 정조 임금의 정책을 충실히 보필)의 도움으로 이덕무와 함께 청나라로 향한다. 답답한 조선의 현실을 떠나 중국으로 간 박제가는 자유로운 한 마리의 새와 같았다.

중국어와 만주어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그는 정조의 신임을 받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청나라를 다녀 온다. 그리고 그 결실이『북학의』로 맺어졌으니, 이 책은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기술한 책이다. 여기에서 '북학(北學)'이란 말은 중국을 선진 문명국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박제가는 조선이 가난한 것은 무역이 발달하지 않은 탓이라 여겼고, 그렇게 된 원인은 우물 물을 긷지 못한 것처럼, 부(富)의 원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중시했던 검소와 절약 관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책의 서문을 쓴 박지원은 자신과 박제가가 '마치 한사람인 것처럼' 그 뜻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나의『열하일기』와 그 뜻이 어긋남이 없으니, 마치 한 작가가 쓴 것 같다. 나는 몹시 기뻐 사흘 동안이나 읽었으나 조금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말하는『열하일기』(熱河日記)란 연암 박지원의 중국 기행 문집이다. 1780년(정조 4년) 박지원은 청나라 건륭제(고종)의 칠순 잔치에 참석하는 사신의 일원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중국 연경을 지나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장지인 열하까지 여행한 기록을 담았는데, 중국의 문인들과 사귀고 연경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중국의 문물제도를 보고 견문한 내용을 각 분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열하는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하북성 동북부 난하(灤河)의 지류인 무열하(武烈河) 서쪽에 있는데, 이 '열하'라는 지명은 무열하 주변에 온천들이 많아 겨울에도 강물이 얼지 않는 데에서 유래했다. 건륭황제는 이곳에다 거대한 별궁을 짓고 거의 매년 행차하여 오랫동안 머묾으로써, 열하를 북경에 버금 가는 정치적 중심지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 책에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종교 ·문학 · 예술 ·지리· 역사 · 풍속 ·토목 ·건축 ·선박 ·의학 ·인물 ·천문 ·병사 등 모든 분야가 광범위하고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수많은 〈연행록(燕行錄)〉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유명한『호질(虎叱)』(호랑이의 질책〉과『허생전(許生傳)』같은 재미있는 소설이 실려 있다. 박지원은 이러한 비유적인 소설들을 통하여 트집이 잡히지 않으면서도 조선 양반들의 위선과 무능을 통렬히 풍자하는 한편, 자신의 실학 사상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

### "겨울철 화목보일러,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진도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알리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는 구조상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기 전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어,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주변 가연물에 쉽게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다. 또 실제로 매년 겨울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들이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첫째, 사용 전 점검하기다. 보일러와 연통에 녹이 슬었거나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 번만 살펴봐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연통 관리하기다.

그을음은 금방 쌓이기 때문에 가끔씩 청소하고, 필요하면 수리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연통이 지나가는 부분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해 두면 더 안전하다.

셋째, 장작 투입 후 덮개 닫기다. 장작을 넣은 뒤에는 덮개를 꼭 닫아 불티가 밖으로 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보일러 주변 정리하기다. 종이, 목재, 비닐 같은 가연물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주변을 조금만 비워도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다섯째, 재 안전하게 처리하기다. 겉보기엔 식은 것 같아도 속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재는 뚜껑 있는 금속통처럼 타지 않는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식혀야 한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내 집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노은서

##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음력 11월 10일)

48년생 설레는 연애감정 가슴이 들떠간다.60년생 순조로운 진행 목표를 향해 가자.72년생 박수받는 자리 화려함을 뽐내보자.84년생 최고의 유명세 비싼 값이 매겨진다.96년생 아름다움이 담긴 약속이 오고 간다.

49년생 여전히 진행 중 앞만 보고 달려가자.61년생 확고한 신념으로 처음을 지켜내자.73년생 잠시 헤어짐 단단함이 더해진다.85년생 낭비가 아닐까 되짚어봐야 한다.97년생 혼자만의 욕심 뒷말을 만들어낸다.

50년생 게으른 성적표 반성문을 써내자.62년생 오래된 기억들 이야기도 길어진다.74년생 진심 어린 충고 귀에 새겨야 한다.86년생 폭넓은 이해 받아들임이 필요하다.98년생 자랑을 숨기는 멋쟁이가 되어보자.

51년생 젓가락 장단에 춤사위가 절로 난다.63년생 놓치고 있는 부분 꼼꼼히 확인하자.75년생 차곡차곡 계획 실천에 옮겨가자.87년생 진짜가 되기 위한 땀을 흘려보자.99년생 강하게 오는 반대와 맞서 싸워보자.

52년생 거절하지 못한 후회가 남겨진다.64년생 두루두루 알찬 선물을 받아보자.76년생 흔들림은 있어도 꿋꿋이 가야 한다.88년생 규모도 경쟁력도 크고 단단해진다.00년생 급하게 하는 결정 주워 담지 못한다.

53년생 이만큼 잘한다로 시험을 마쳐보자.65년생 장사로 하지 마라. 마음을 열어보자.77년생 까칠한 조건도 거뜬히 받아주자.89년생 근사한 거래에 도장을 찍어내자.01년생 초라한 변명보다 잘못을 인정하자.

54년생 혼자만의 고민 밖으로 꺼내보자.66년생 그림같은 순간 추억으로 남겨진다.78년생 누구라는 이름, 찬란하게 빛나진다.90년생 경험의 차이 부지런히 따라가자.02년생 달라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야 한다.

55년생 신명 나는 제안 먼저 손을 잡아주자.67년생 든든한 내 편이 날개를 달아준다.79년생 진정한 영웅 불이익과 맞서보자.91년생 새로운 재발견 꿈을 향해 달려가자.03년생 여간 고역이어도 포기는 금물이다.

56년생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를 가져보자.68년생 흑과 백이 다르다. 선을 그어내자.80년생 애틋함과 고마운 정이 쌓여간다.92년생 콩이 팥이라 하는 유혹이 다가선다.04년생 예쁘고 깨끗해야 합격을 받아낸다.

57년생 미처 모르던 공부 재미가 붙어진다.69년생 꼼꼼한 계산법 득실을 따져보자.81년생 주려 하지 마라, 원망이 되어 온다.93년생 인연을 넘는 필연 서로를 알아가자.05년생 주인공을 빛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58년생 예상치 못한 축하 만세가 불려진다.70년생 가뭄에 단비 같은 도움을 받아보자.82년생 괜히 하는 긴장 싱겁게 끝이 난다.94년생 용감하지 못하면 기회는 달아난다.06년생 과분한 사랑을 허리 숙여 받아내자.

47년생 울타리 가득 행복 꽃이 피어진다.59년생 땀으로 얻은 결실 부자가 되어간다.71년생 솜씨 좋은 일꾼 찾는 곳이 많아진다.83년생 기쁨이라 쓰인 소식을 들어보자.95년생 변해지는 초심 회초리를 맞아보자.

## 사 설

### 을사년을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계층은 노년 세대가 아닐까. 특히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4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중에서도 질병은 노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누구나 노인이 되면 질병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최소한 2.3가지 이상의 질병은 상존한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이 노인자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시도 1순위는 본인의 질병이었다. 그다음은 우울, 자녀와의 갈등 순이다. 노인자살 시도자 3명 중 1명이 본인 질병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엄청난 사회문제다. 하루빨리 좋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년 세대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절하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노화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창 국가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질병은 사회적 지위가, 경제적 위치가 높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고로 우리나라는 회갑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노(老)에 들어서는 단계로 봤다. 즉 노년기의 시작으로 봤던 것이다. 인생 70은 '고래희(古來稀)'라 했다. 70까지 사는 것은 희귀하다는 뜻이다. 때문에 고희연을 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인생 80세 시대가 되었다. 적절한 영양섭취와 의료기술발달 덕분이다. 하지만 나이의 흔적은 60이 넘으면서부터 여기저기에 남겨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면역체계 약화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50세가 넘어가면 얼굴을 비롯한 피부 색깔부터 달라진다. 머리카락도 변한다. 관절도 아프다.

특히 현대과학의 혜택을 받을수록 수명은 조금씩 연장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은 질병이다. 애당초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설계해 놓은 생체시계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2025년 말 현재는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다. 때문에 앞서 말한 노인 문제 중에서도 자살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구조가 변화되지 않고 이대로 유지된다면 말이다. 때문에 웰다잉(Well-dying)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건강하게 생을 맞이하는 자살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웰다잉 방법을 보면 불치병인지 만성질환인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건강체크,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인공호흡기 등을 장착하거나 심폐소생술 또는 수혈 등을 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걸까"하고 자문해 현재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성시간 갖기,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장 및 자서전 작성, 건강할 때 자원봉사클럽에 가입해서 이웃을 돕는 등 자원봉사하기. 하고 싶은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버킷리스트(bucket list)작성, 추억물품 보관, 마음의 빚 청산, 위급순간에 가장 빨리 도움 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정해두는 고독사 예방, 묘비명을 쓰고 사진을 정리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죽음의 모습을 가족에게 얘기하는 장례계획 세우기 등이다. 여하튼 현재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정책을 잘 설계해서 펼쳐나가길 바란다. 자신들도 곧 노년세대가 되기에 더더욱. 결국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머잖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지 않은가. 또한 현재의 자신들 부모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가 아닌가.


| 광전매일신문 |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
|---|---|
| 회 장 이송암 | 발행인 · 대표이사 정길화 |
| 편집인 전광춘 | 편집국장 박선주 |
|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00065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
| 대표전화 (062)525-9775 | <팩 스>(062)528-4566 |
| 회 장 실 (내선)210 | 편 집 국 교 2001 |
| 임 원 실 (내선)207 | 정 경 부 교 2003 |
| 총 무 국 교 2002 | 사 회 부 교 2004 |
| 광 고 국 교 2006 | 사 업 국 교 2007 |

인쇄 :(주)대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